

05.25

세상이 몰랐던 가치의 재발견

배우 서이숙



MAY 2024



월간 **내일**

05 May 2024
Vol.588

Vol.58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Contents

2024.05

Vol.
588

세상이
몰랐던
가치의
재발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Special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전환의 방향

04
토픽에세이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08
우리사이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 지키기

10
어쩌다 우린
근로자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주)대교CNS

14
내일인터뷰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배우 서이숙

Move

우리 사회의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가치있는 이야기

18
고용이카이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행복한 삶

22
내일, 매일
미래차와 보안,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부분
모빌리티 보안전문가·박사 윤덕상

26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정책
‘이직일·상실일·퇴직일’

28
희망브릿지
인생은 40부터 시작이야!

30
기자단이 간다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3학년 주목!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내 꿈에 가까이!



Wave

오늘의 변화 속에서 펼쳐지는
유용한 정보와 내러티브

34
내일, 플레이스
역사가 살아 있는 남영동

38
트렌드 프리뷰
청춘들의 선택, 철학이 주는 위로

40
MOEL 뉴스

44
팩트폴리스
종이책과 전자책, 환경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46
잡, MBTI
3D 프린팅 모델러

48
넬툰
일기의 재발견 & 책을 읽는 이유

50
WEVENT
초성퀴즈 & 독자 라운지

당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밤하늘의 별을 따려고
손을 뻗는 사람은
자기 발아래 꽃을 잊어버린다.
- 제러민 벤담

가치는 상대적인 것 아닐까.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를 것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밤하늘의 별이 선명히 보이거나
다른 이에게는 발아래 꽃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
그런 것이 가치의 의미 아닐까.

매일 같이 출퇴근하는 일터에서
작은 의미 하나를 부여하는 것,
타인이 아닌 바로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이다.

이번 5월에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길 바란다.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 지키기

근로자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로자가 예기치 못하게 일터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5월호에서는 일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설명해본다.
글 김은주 노무사(테라노무사사무소)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한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의 인과성'이며 사고나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된다. '업무상 사고'란 업무와 관련해 우연하고 급격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회사 내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사업장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넘어짐, 날카로운 장비로부터의 절단이나 찢림, 화재폭발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과로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다. 대표적으로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계질환, 허리·어깨·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이 있다. '출퇴근 재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길에 부상이 발생했거나, 도보로 이동 중 넘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다.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는 범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치료비인 요양급여와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휴업급여가 있다.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는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 치료자에게는 상병 보상연금과 간병급여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시에는 유족급여와 장례비도 받을 수 있다.



산재를 처음 신청할 때는 치료를 받은 병원을 통해서 최초요양을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접수를 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 방식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치료비를 대신 선납했을 경우 대체 청구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사업주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산업재해 발생 후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및 진폐관련 보상은 5년)의 시효가 있다.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산재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입증자료 및 사업주 확인 등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간혹, 사업주가 산재 신청 대신 공상처리(합의)를 권유하며 산업재해조사표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산재 은폐에 해당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상처리로 산재 발생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 신청으로 인한 보험요율 상승 등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법에 맞게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보험과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둘 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이중 보상은 안 되므로 같은 사유로 다른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에서의 급여 지급 금액은 제한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재해를 예방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통해 일터에서의 안전한 삶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2023 근무혁신 인센티브 우수기업’ (주)대교CNS

직원의 자발적인 성장과 집중으로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주)대교CNS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의 모습이다.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는 (주)대교CNS HR파트 3인방 박다인 파트장·강보경 책임·송인의 사원을 만났다.

글 정자은 사진 오충근

Q 먼저 (주)대교CNS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 파트장 (주)대교CNS(이하 대교CNS)는 정보시스템 통합과 관리, IT컨설팅, 디지털 콘텐츠사업과 같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IT서비스 기업입니다. ‘더 편리하게 사람을 지원하다’라는 미션 아래 고객의 행복을 위해 기술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주로 대교그룹사의 IT 시스템을 관리했고, 2021년부터는 IBM, Lenovo, Qlik 총판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사업의 확장과 더불어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2022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2023년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Q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에 선정됐는데, 어떤 부분을 인정받아 수상했는지 궁금합니다. 강 책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일과 생활의 균

형을 도모하는 고용환경을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취지이고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은 일·문화 개선 관련 정량적, 정성적 개선항목을 심사해 선발됩니다. 대교CNS의 경우 정량적 성과로 초과근로시간 감축과 유연근무 사용률 향상, 연차 사용률 증가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정성적 성과 부분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사항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하는 문화 개선과 관련해 대교CNS 조직문화 개선의 방향성인 ‘성장, 존중, 소통’에 따른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했습니다.

Q ‘성장, 존중, 소통’에 따른 제도 개선 관련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송 사원 대표적인 사례로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스터디’, 세대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기획된 CEO타운홀미팅 ‘Tiki-talk(티키톡)’, 회사를 벗어나 직원들 서로간의 소통의 기회를 마



련하는 'Chilling day(칠링데이)'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Q 근무형태 관련해 사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강 책임 대교CNS의 근무형태를 설문과 인터뷰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시기에 업무가 몰려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근무 형태를 고려해 초과근로 시, 대체휴무 신청이나 선택근무 시간 조정으로 초과근로를 감축시켰습니다. 또 과거 연차 사용 신청 시, 업무대행자와 사유 입력란을 삭제했고요. 웹으로만 신청 가능하던 연차 휴가 신청도 모바일 시스템으로 확대했습니다. 직원들의 휴가 신청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됐다고 봅니다.

Q 대교CNS는 임직원들의 일·생활 균형과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복지를 펼치고 계시나요?

박 파트장 대교CNS는 유연근무제(사차/선택근무)와 원격근무제 운영, 동호회 활동 지원, 한화 리조트/마이더스리조트 회원가 적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자녀교육비 지원, 생일선물과 조기퇴근권 지급과 같은 복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무/자기계발 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

장스터디와 동아리활동, 학습조직 CoP를 운영하고, 사내 협업툴인 'Confluence'를 통해 직원 간의 기술 공유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인사담당자가 생각하는 '근로자가 추구하는 기업문화'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 사원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핵심가치로 삼는 기업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로 ESG 경영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떠오르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배경과 정체성, 취향, 성격을 존중하는 것, 제도나 시스템 측면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또 조직 내 다양성과 형평성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무엇일까요?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유도해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 참여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용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이행하면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해 연간 100개소 내외의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일·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심사합니다. 대교CNS는 정량적 성과로 초과근로시간 감축과 유연근무와 연차 사용률의 향상을 인정받았습니다.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소속감을 만들어 내는 포용력 높은 안정된 문화. 이 모든 것이 근로자의 높은 근무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 대교CNS가 업무효율성을 위해 계획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 파트장 IT회사답게 개발자들이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개발자들의 커리어 목표 충족을 위해 학습지원과 사업성장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중 HR의 역할로 자발적인 사내 직무전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사내 전체 직무에 대한 직무요건서를 완성해 내부 직무전환제도인 '링크드미(Linked me)'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연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배우 서이숙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캠페인 모델



일하다 보면 가끔은 지치고 이 길이 맞나 의문점이 들 때도 있다. 꿈을 향한 인생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일에 대한 열정 아닐까. 배우 서이숙의 연기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건, 바로 연기에 대한 그의 지치지 않는 사랑 때문일 것이다.

글 정자은 사진 권팀이엔엠

우리는 모두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닌다. 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제법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나라는 존재는 더 발전하고 단단해진다. 배우 서이숙은 모든 순간이 연기와 연결된다고 한다. 결국 쉬는 것도 따지고 보면 연기의 자양분이 될 테니 말이다. 그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은 자신과 일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다.

**Q MBC 드라마 '밤에 피는 꽃'으로 작품을
마치셨는데,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2월에 종영했지만, 요즘은 사전제작이라 작년에 촬영을 마쳤습니다. 덕분에 8개월 정도의

여유 있는 휴식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최근 들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틈날 때마다 어머니와 일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면서, 어머니의 삶과 모습을 새롭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Q 퇴근 후의 생활이나 쉬는 날, 어떻게
힐링을 얻는 편인지요?**

개인적으로 바다보다는 숲을 좋아합니다. 푸른색을 보면 신기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사는 집 주변도 초록 일색입니다. 근처에 북한산이 있어 둘레길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일 캠핑식으로 어머니 집에 갈 때면 캠핑을 즐깁니다. 요즘은 차박 스타일로 간단히 필요한 것을 챙겨 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에 빠졌습니다.



Q <밤에 피는 꽃><나쁜 엄마><퀸 메이커>
<슈룹><부부의세계> 등 해가
갈수록 더 활발히 활동하십니다.
좋은 연기를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작품 속 인물마다 서사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부터 악인, 착한 캐릭터, 모두가 저마다의 입장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 텍스트 후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많이 갖습니다. 캐릭터는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을 테니까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 말은 인물에 대해 끊임없는 탐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은 배역이 주변 인물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생각합니다. 인물을 단편적으로 표현하지 말자. 이런 자세로 연기에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Q 직장인 생활을 하시다가 연기를
선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열정은 중학교 시절 접한 공연이 시작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방과 후, 친구들과 모여 콩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성인이 된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연기에 대한 갈망이 무의식적으로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극단단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작정 지원을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기를 시작했죠. 불편함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돌이켜보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연기하는 순간의 행복이 저를 지탱해준 것 같습니다.

Q 지금의 배우 서이숙을 있게 해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일이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 여유 있게 마음을 가져 보자'고 말입니다. 자신에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
말은 인물에 대해 끊임없는 탐색을 시도합니다.
인물을 단편적으로 표현하지 말자.
이런 자세로 연기에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한 믿음과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순간 조급함이 사라지면서, 연기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연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쌓았죠. 돌이켜보면 엑스트라 20년 정도를 했는데 항상 재미있었습니다. 모든 관객이 자신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주인공을 더 보겠지만 말입니다. 관객 한 명이라도 내 연기를 본다면, 연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Q 고용노동부 매거진 '일·생활 균형'
캠페인의 모델인데, 촬영 소감이
궁금합니다.

TV CF '워라밸로 키워라-사업주, 근로자편'에서 사업주인 대표역을 연기했습니다. 상당히 멋진 대표로 나왔는데요. 아이의 참관 수업을 위한 연차사용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원격회의를 진행합니다. 선택근무제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촬영 내내 웃으면서 연기에 임했습니다.



Q 베테랑 배우로서 배우 서이숙 님이
생각하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은
무엇인지요?

일단 말은 일은 최선을 다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업무 효율도 높이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최대한 분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일할 때는 연기만 생각하고, 쉴 때는 자신과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배우는 직장 인처럼 주기적으로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 유연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Q 5월은 '가족의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서이숙 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요.

가족은 서로를 존중할 때 그 의미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가족 간의 원활한 소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사랑을 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기에 서로 상처받지 않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존중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니 어머니를 더 이해하게 되고 사이도 돈독해졌습니다. 대화의 기술도 늘고 존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존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행복한 삶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가화만사상’이라는 말처럼 가정과 일은 분리될 수 없다. 집이 화목해야 일에도 잘 집중되듯, 일터가 즐거워야 퇴근 후의 삶도 행복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리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



2024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사업은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에 시설 투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지원)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인프라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사업주 투자 비용의 70%, 연 250만 원 기준, 3년치 지원)

종류	지원 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근태관리 시스템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 및 보안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절차/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 및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통 요건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하고,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활용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고,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및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대상 유연근무 유형

재택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보통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일을 주거지, 출장지와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처리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처리하는 방식

시차출퇴근

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업·종업 시각 및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결정하는 제도

지원내용



유형	1개월 지급액	최대 지급액
재택·원격 근무	15만 원(월 6일~11일) / 30만 원(월 12일 이상)	360만 원(1년간)
시차출퇴근	10만 원(월 6일~11일) / 20만 원(월 12일 이상)	240만 원(1년간)
선택근무	30만 원(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360만 원(1년간)

<지원절차/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승인(고용센터) → 유연근무 도입·활용(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신청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일·생활 균형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일하는 방식 및 문화를 혁신함으로써 근로자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근무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 캠페인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똑똑하게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제대로 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 실 권리 지켜 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지원절차/신청방법>

-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 검토/승인(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 신청서 서식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에서 내려 받아 작성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 망설이는 기업에게 유연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당 인사노무 분야 전문 컨설턴트 등을 매칭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개소 당 약 12주가 소요된다.

컨설팅 절차

- 1 기업 진단·분석(1~2주)
- 2 인사·노무제도 설계, 필요시 IT 인프라 설계 포함(3~5주)
- 3 정부지원제도 안내·신청(3~8주)
- 4 인사·노무제도 개정·마련, 인프라 구축(7~8주)
- 5 시범 운영(9~10주)
- 6 사후관리(11~12주)

컨설팅 절차

- 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도입 범위,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기업 희망 시 IT 인프라 구축 등 컨설팅
- 유연근무 관련 노동법적 쟁점 상담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
- 유연근무 장려금·인프라구축비 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패키지 참여 지원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컨설팅 제공

<지원절차/신청방법>

- 참여기업 모집공고(3~7월중) 기간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suwon@korea.kr) 접수
- 구비서류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



미래차와 보안, 운전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부분

모빌리티 보안전문가·박사 윤덕상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모빌리티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국내외적으로 각종 규제와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모빌리티 보안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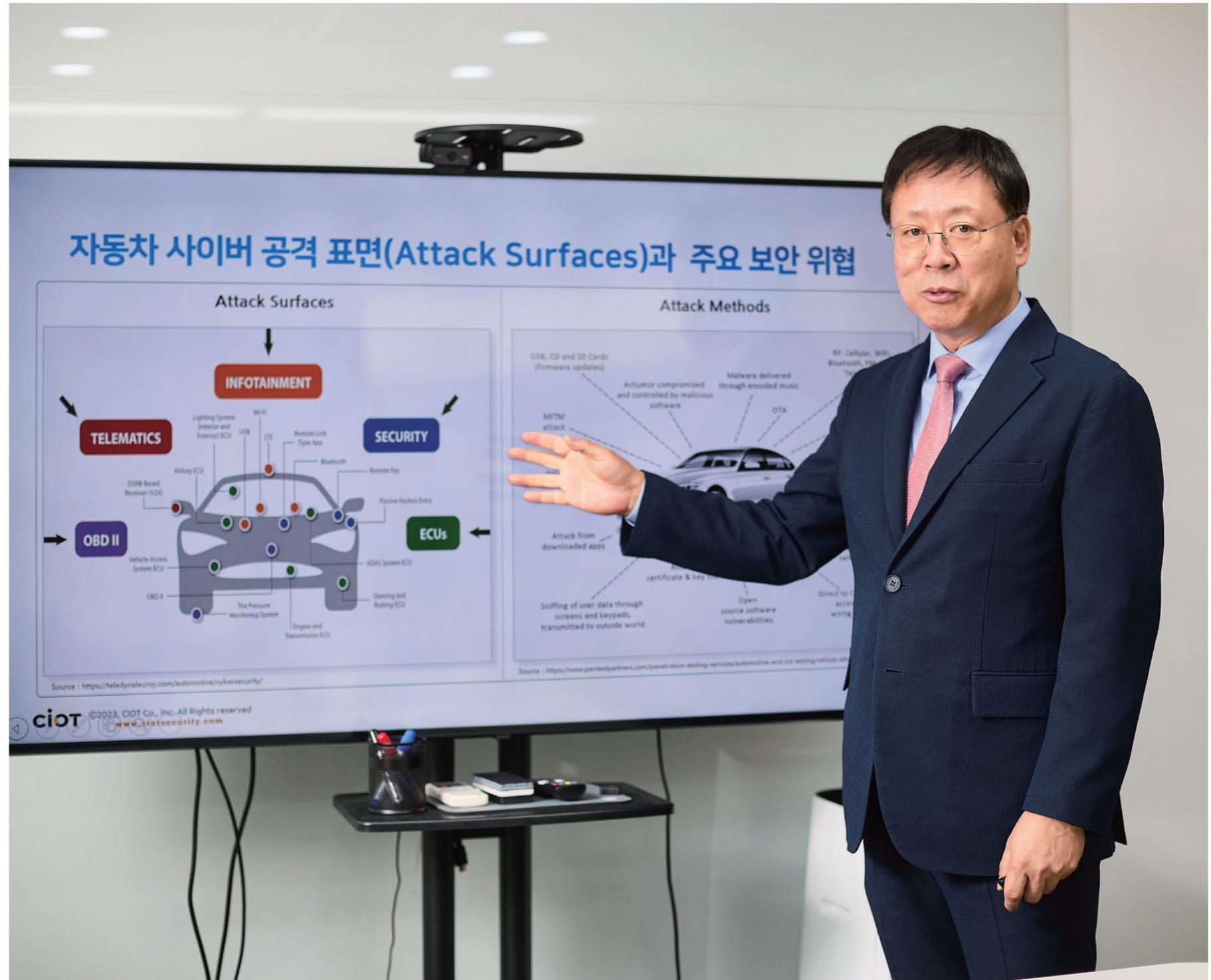
글 정자은 사진 김재욱

Q 모빌리티 보안전문가로서 (취시웃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웃의 간단한 소개와 박사님의 역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시웃(이하 시웃)은 모빌리티 보안 전문기업으로 자율주행 차량에서 꼭 필요한 V2X(Vehicle to Everything) 보안 솔루션과 무선업데이트 기능인 OTA(Over The Air) 보안 등의 차량 보안 솔루션을 비롯해 내부자 정보유출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는 정보유출탐지 솔루션인 Weasel, IoT 보안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필요한 비즈니스를 확장,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보안 관련 분야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33년간 다수의 대기업과 정보보호 전문기업에 근무했습니다. 주로 그룹 내 정보보호 전문 조직을 처음 세팅했습니다. 또 내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나 정보보호 사업 론칭을 주로 맡았습니다. 시웃의 경우 대외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범용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의 경험과 시웃의 필요성이 만나 모빌리티 보안 분야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모빌리티 보안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완벽하고, 사용되는 기술이나 개발되는 제품 모두 신중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Q 미래차는 다양한 시스템과 통신을 주고받는 만큼 해커가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점차 전자기화, 소프트웨어화 되면서 차량의 각종 부품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자 제어장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차량 한 대당 사용되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수가 최대 200개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요. 대부분 차량에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가 탑재되면서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외부접점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Q 해킹 공격으로 모빌리티의 보안도 취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서의 보안 취약점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더 완벽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차량 보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사용하는 전자제어장치(ECU)는 아직 처리 성능이 낮고, 메모리도 작습니다. 제한된 전력을 사용해야 하므로, 복잡한 코딩이 필요한 보안기능을 추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제한상황에도 완벽한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솔루션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Q 미래차 보안 관련 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입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차 보안이라고 하면 암호를 기반으로 여러 자동차 분야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시뮬에서는 관련 분야 근무경험이나 역량을 보유한 분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최근 인기가 많은 Python이나 Java 등의 고급언어 보다는 C나 C++와 같은 원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했던 이를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나 MCU(Micro Controller Unit)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임베디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AUTOSAR, ECU 프로그래밍, 자동차 통신 프로토콜(CAN, LIN, FR, Ethernet) 등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모빌리티 보안 전문가의 주요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모빌리티 보안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 단기간에 모빌리티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조기 습득하려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모빌리티 보안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 보니, 타 분야에 비해 완벽하고 철저한 성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최근 새롭게 떠오른 직업이자 시장인 만큼, 관련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이에 따른 자동차 보안전문인력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외적으로 양성되는 해당 인력의 수는 현저히 적습니다. 예로 H자동차그룹이 채용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을 수 없어, 국내 특정 대학을 통해 전문 대학원과정을 만들고 졸업자 전원을 채용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보안 교육기관도 양성인력을 늘리는 만큼 향후 자동차 보안분야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모빌리티 보안 전문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자격증

교육과정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려대, 성균관대, 단국대, 국민대, 순천향대, 인하대 등.
[교육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정보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보안협동조합 등의 협단체와 TUV Korea, DNV Korea, Vector Korea, UL Solutions 등의 국내외 자동차 보안 전문기업 등.

자격증
 일반 보안 자격증과 더불어 ISO/SAE 21434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 자격증(ACCE-FL), UL-CCSP 자격,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CACSP) 등.



Q 모빌리티 보안 분야에 관심 있는 이에게 선배이자 전문가로서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360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는데, 모두 같은 방향으로 뛰기 때문에 등수가 정해진다”는 이어령 교수님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제까지 학교에서의 배움이 같은 방향으로 뛰며 경쟁했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미래를 보고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 분야도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만, 지금 선택하면 그 길은 선택한 자만의 길이 될 것입니다.

중장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인생은 40부터 시작이야!

고령화는 이제 사회적 이슈가 아닌, 자연스런 현상이다. 은퇴 이후, 제2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원 해주는 제도와 서비스 영역도 전 세계적으로 보다 확대되고 있다.

글 편집실 참고 고용노동부·중장년워크넷



경력설계로 멋진 2의 삶을 만든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년에 진입하는 40대부터 60대까지 중장년을 위한 경력설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은퇴·퇴직 후 노후를 걱정하는 중장년을 위해 자가 진단으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생애경력설계서비스'는 참여자 연령과 취업 여부, 종사 업종 등에 따른 생애 과업의 이해, 직업 역량, 가치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 지원이 목적이다. 또 중장년의 생애경력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장·단기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한다.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경력경로를 설계하고 삶의 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안내

- 대상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신청방법 www.work.go.kr/lifeplan을 통해 신청 또는 각 지역 중장년내일센터에 문의
- 교육비 무료(식사/수료증 제공)
- 교육장소 중장년내일센터 강의실, 기업과정은 기업 내 자체 강의장 활용 가능

연령대별 맞춤형 경력 진단

해당 서비스는 각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해 40대, 50대, 60대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0대 프로그램은 자신의 경력을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에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직무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0대 프로그램은 자신의 직업역량과 경력자산을 발견, 다양한 대안을 찾는다. 이를 통해 경력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다. 60대 프로그램은 퇴직 이후, 삶의 변화를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연계 해주고 있다.

특히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의 장점은 '평생 현역'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진단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생애경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맞는 경력준비 가이드라인을 제공받게 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유형별 특성과 행동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경력관리와 추천 서비스를 제시 해주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다.

자가진단으로 생애 경력 설계 받기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 3학년 주목!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내 꿈에 가까이!

고등학교 3학년은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인 동시에, 자신의 꿈과 직업을 파악해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어도 특화훈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글 김서정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 16기 참고 고용노동부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학교 수업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수능이나 대학 진학 말고 빨리 취업을 원하는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있으신가요? 일반고 학생의 경우 조기 취업을 원하지만,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이런 학생들을 위해 직업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일반고 특화훈련을 도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2015년부터 2023년 말까지 약 6만 명의 학생들에게 노동 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기자단과 함께 일반고 특화훈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반고 특화훈련이란?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직

업 훈련으로, 일반고 3학년 학생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 10개월간 민간 훈련기관에 출석해 직무역량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올해는 전국 235개 훈련기관에서 548개 훈련과정이 선정돼,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계설계, 사물인터넷(IoT), 미용, 음식 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제과제빵·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등 전통적인 서비스 직종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됐지만, 올해부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게임콘텐츠 등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추가되었으니 일반고3 학생들이 더 다양한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겠죠!

작년에는 총 5,544명이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했으며, 취업률은 70.5%를 달성했습니다. 훈련생들은 직종별 전공 교육뿐만 아니라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1:1 취업 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interview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박재원 사무관님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일반고 특화훈련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인적자원개발과 박재원 사무관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일반고 특화훈련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비교해서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어떤 점에서 더욱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고를 다니다가 뒤늦게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반고의 경우, 특성화고 학생보다 직업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직업 훈련으로 전문성을 키울 기회와 노동법, 산업안전 등 직업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교육받을 기회도 적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고 특화훈련을 통해 직업 훈련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10개월간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일반고 학생들을 노동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합니다.

Q 일반고 특화훈련과 관련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사항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사업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입니다. 우선 자동차 정비, 사물인터넷, 미용, 제과제빵 등 49개 직종에서 고등학생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비는 전액 지원되며, 훈련기관에 성실히 출석하면 월 20만 원의 훈련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Q 일반고 특화훈련 정책 참여를 고민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생각해 보고, 미래에 대해 더 다양한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직업훈련과정을 거친 후, 사회에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특화훈련을 발판 삼아 미래를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고용복지센터 이진 담당자님

서울고용복지센터는 서울시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를 관할 지역으로 두고 있는 고용센터인데요,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는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과정 안내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일반고 특화훈련 정책은 어떤 경우에 적합한 정책일까요?

일반고에 재학하며 학교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수능이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조기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제과제빵·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등 전통적인 서비스 직종 중심이었으나, 올해부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게임콘텐츠 등 첨단/디지털 분야 훈련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첨단/디지털 훈련과정은 기업이 훈련과정 설계부터 운영까지 참여, 기업의 실전 프로젝트 해결방식 학습, 기업 실무자의 정기적 멘토링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 학습이 가능합니다.

Q 일반고 3학년 학생이 해당 정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훈련생들은 기계설계, 사물인터넷, 미용, 음식 서비스 등 33개 직종의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력서 작성법 강의, 모의 면접, 1:1 취업 상담 등과 같은 체계적인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는 전액 지원되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 장려금(출석률 80% 이상 시 월 최대 20만 원)도 지급됩니다.

Q 일반고 특화훈련 정책 참여를 고민하는 고3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고3 학생 여러분들! 고용센터에서는 학생들이 훈련을 통해 한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유용한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 장려금이 월 1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훈련비는 전액 무료라는 사실! 게다가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훈련 장려금도 지급된다고 하네요! 올해는 학생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이 확대됐는데요. 훈련 장려금이 월 1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해 진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반고 특화훈련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필요한데요! HRD-Net(직업 훈련 지식포털) 홈페이지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메뉴얼에 따라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후 고용센터 심사 결과, 카드 발급이 결정되면 우편 또는 은행 방문 방식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3이 되는 연도의 1월 1일 이후에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반드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학교장 승인을 받은 학생은 카드 발급 신청을 할 때 고용센터에 학교장 승인서 및 개인 훈련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과 기관을 선택해야겠지요? 고용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받고 싶은 교육과 훈련을 찾아본 후, 수강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훈련 유형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선택해 검색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이름 밑에 일반고 특화훈련 표시가 보이는 훈련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참여 학생의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하루에 계획된 교육 시간과 한 달간 실제 출석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본인인 등록한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하지만, 출석률이 80% 미만이라면 훈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해야겠지요?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내 꿈에 가까이!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수능이나 대학 진학의 길이 아니라 빨리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약 10개월 동안의 체계적인 직업 훈련과 약 20만 원의 훈련 장려금을 받으며 진로에 한 발자국 다가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항상 곁에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촌스런 인테리어부터 빈티지 감성까지

1호선 남영역 1번 출구로 나와 2~3분 남짓 길을 따라 걷는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남영사거리를 중심으로 숙대입구역까지 남영동 특유의 골목감성을 즐길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소위 MZ세대 감성이 묻어난 '핫 스팟'의 시작이다. 이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한 카페의 경우, 1970~80년대 미국의 팝이나 바를 콘셉트로 잡아 내부를 꾸몄다. 레트로 감성의 살짝 촌스런 간판과 불투명한 유리벽, 호기심을 일으키는 외관은 내부로 발걸음을 끌기 충분하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LP감성, 특이한 이름, 빈티지 풍의 분위기로 가득하다.

카페를 등지고 좌회전해 골목길로 들어오면 건물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상점들이 줄 서 있다. 남영동 골목의 특징은 건물 하나하나 개성이 저마다 다양한데 있다. 오래된 건물의 큰 틀을 최대한 살려 가게를 꾸민 곳도 인상적이다. 간판이나 대문을 그대로 활용해 마케팅으로 쓰는 곳도 보인다.



과거로 만들어진 길 그리고 감성

역사가 살아 있는 남영동

서울의 골목길하면 최신 트렌드와 독특한 개성으로 가득한 그림을 떠올릴 것이다. 사람들이 소위 '핫 플레이스'로 찾는 모든 동네가 결국은 과거에서 비롯된 현재다. 특히 남영동은 일제강점기와 광복이라는 역사가 잔존해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곳이다.

글 정자는 사진 오충근





1922년 서양식 쇼핑몰, 남영 아케이드의 존재감

남영동은 건물 자체가 작고 묘하게 일본가옥의 느낌이 난다. 용산 미군기지 와 바로 맞닿은 동네이기도 하지만, 일 제강점기엔 ‘연병장’(練兵場)으로 불리 며 인근에 일본인이 많이 거주했다. 때 문에 일본군의 가족이나 군무원들이 살았던 적산가옥이 일부 남아 있다. 현재 ‘남영 아케이드’라 불리는 용산공 설시장은 과거 군인이나 일본 사람들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사기 위해 찾던 시 장이었다. 일제는 조선인과 구별해 신 식 시장을 세웠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식 건물이었겠지만 지금은 많

이 낮고 허름해졌다. 1922년에 지어진 서양식 쇼핑몰인 이곳은 형태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지금은 남영 아케이드 내부에 위치한 카페나 상점 을 찾는 사람들로 발길을 채운다. 콘크 리트 외벽에 목재로 만들어진 일제강점 기 건물, 한때 일본인이 살았던 적산가 옥, 주변에 주둔했던 미군기지. 현재의 남영동은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받 은 동시에, 현대 감성이 새롭게 피어나 는 곳이다. 남영동의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서도 이를 보존하는 것, 남영동 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일 것이다.

미군 부대의 영향, 한국식 스테이크 거리

한강로를 따라 직사각형의 지형을 지닌 동네가 남영동(南營洞)이다. 서울 남쪽 에 군영이 있었던 것에서 그 지명이 유 래했다고 한다. 남영동 내 일본군 주둔 지를 미군이 이어받으며 사용했다.

인근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며 자연스레 이국적인 식자재도 함께 들어왔다. 부 대찌개와 스테이크 전문점도 그 시기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때는 ‘스테이크 거리’로 불리며 스테 이크와 부대찌개를 파는 식당이 몰리 기도 했다. 1960년대 초창기 유명한 곳 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몇몇 가게 들은 자리를 지키며 그 명맥을 이어오 고 있다. 남영동의 스테이크는 흔히 생 각하는 스테이크와는 다르다. 초반에는 버터에 소시지와 베이컨을 구워 잘라 주는 것이 전부였다. 여기에 스테이 크와 각종 햄, 채소가 추가되면서 한국 식 ‘모듬 스테이크’가 탄생했다. 최근에 새로 생긴 음식점들도 다양하 지만 1960~70년대 한국식 스테이크 철 판구이를 경험해보는 것도 남영동에서 만 누릴 수 있는 문화이다.



철학가의 말이나 사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 등의 어록을 편집한 게시물이 SNS 상에서 화제 되는 것은 물론,
철학 관련 서적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글 강은영 한국경제매거진 기자

청춘들의 선택, 철학이 주는 위로

지금은 철학열풍



낮아진 철학의 문턱

“삶이 괴롭다면 그냥 평소보다 많이 먹고 많이 자라”, “인생은 혼자다. 혼자서도 단단해질 줄 알아야 한다”. 냉소적인 친구나 선배가 해 줬을 법한 이 시시콜콜한 조언은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가 남긴 말이다. 엄세주의적인 이 19세기 철학자의 통찰력이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서점가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이 더욱 와닿는다.

지난 9월 발간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강용수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연구원이 쇼펜하우어의 어록과 사상을 풀어쓴 책이다. 이 책은 7개월 만에 30만 부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며 일명 ‘쇼펜하우어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1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라는 요즘 출판업계에서 그것도 철학 교양서가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에 안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시작으로 서점가는 철학가의 생애나 사상, 명언을 다룬 서적들이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철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니체 역시 주목받고 있으며, 공자나 장자, 노자 등 동양의 철학자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금이야 바로 철학의 르네상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철학을 쉽게 풀어 쓴 책이 철학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자기 계발도 철학이 대세

철학 열풍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감명 받은 문장을 필사하거나 철학자의 명언을 릴스로 편집해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 확산하고 있다. 취업과 고용, 내 집 마련, 노후 등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한 청춘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잡을 자기 계발의 방법 중 하나로 철학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철학이 이토록 집중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흔들리는 현실과 막막한 미래에 청춘들은 고민이 많다. 부모나 친구와의 고민 상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신만의 내밀한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단단하게 내 안에 뿌리 내릴 심지가 필요하다.

청춘들은 스스로 이 심지를 품기 위해 철학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한다. 학교에서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인간관계에 회의를 느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는다. 철학은 인생의 매 순간에 나답게 처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아마 그것이 지금의 철학 열풍을 불러온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쇼펜하우어는 결국 삶은 고통이지만, 사람은 그 고통을 버텨내면서 성장한다고 봤다. 지금 청춘에게는 덮어 놓고 ‘모두 다 잘 될 거야’라는 희미한 낙관의 말보다는 ‘원래 사는 건 다 괴로운 거야’라며 냉소적이지만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말이 더 위로가 되는 때다.



01 공정채용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법률·노무상담 받으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법률 자문을 온라인을 중심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공정채용 상담센터」를 4월 1일 개소했다.

현재 채용 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채용절차법, 남녀고

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다. 때문에 그간 중소기업들은 채용업무 담당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몰라서 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공감채용 가이드북 및 핸드북을 발간해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그때그때 의문이 생기거나 문제점에 부딪힐 때 즉각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상담센터도 개소하게 되었다.

02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첫 발간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으로 배포한 모든 자료를 한 권에 모아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중대재해

동향 공유 플랫폼이다. 중대재해 사이렌 개시 이후 ‘전국 중대재해 발생 동향과 예방 대책’, ‘계절·시기별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 등을 실시간 전파·제공해 왔다. 현재 전국에 78개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5만 3천 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안전 공유 대표 채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그간 사업주·안전관리자·일반 국민들에게 공유된 600여 건의 자료들이 모두 담겼다.



03 2024년 2회차 고용허가제 신규 신청 접수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부터는 한식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된다.

04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이중 51억원은 청산 완료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 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4월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 2023년 12월 11일부터 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 15개 기업은 51억여 원의 체불임금을 청산,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4월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05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청년잡(job) 성장카페' 개소



4월 15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서면에서 '청년잡(job) 성장카페' 현판식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참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년잡(Job) 성장카페'는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복합 취업지원 공간이다. 지역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파인드 미(find me)], 진로 탐색[서칭 잡(searching job)], 취업 역량 강화[컴페텐시 업(competency u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탐방 등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심리상담을 통해 청년의 마음 건강도 지킬 예정이다.

4월 15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서면에서 '청년잡(job) 성장카페' 현판식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참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년잡(Job) 성장

06

새내기 공무원에게 '청렴DNA' 심는다



고용노동부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학교'를 운영한다. '청렴학교'는 신규 공무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을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올해에는 학교장인 장관이 최초로 직접 주재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상'을 위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2024년 청렴학교에는 새로 임용되었거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신규 공무원 155명이 참석했다. 반부패·청렴 특강을 비롯해 청렴 라이브 공연(연극), 모의 역할 체험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 학교장과 새내기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청렴한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구축 및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

고용노동부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학교'를 운영한다. '청렴학교'는 신규 공무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을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07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4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다. 그는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해 집중 토론을 펼쳤다.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되, 무엇보다 경력력을 계속 이어나가며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가 4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다. 그는 「저출산·저출생

08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과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 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

베어진 나무가 높이 쌓여 있고 그 옆에서 종이가 똑딱똑딱 만들어지는 삽화는 우리가 어린 시절 책에서 흔히 봐 왔던 것이다. 그 덕분에 종이는 우리에게 산림을 훼손하고 그로 인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대표적인 물건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종이책의 대안으로 떠오른 전자책이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살리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그 이면의 오해와 진실을 만나보자.

글 이경희

종이책과 전자책, 환경을 더해롭게 하는 것은?

종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무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자원이다. 산소를 생산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며 홍수를 예방하는 등 그 이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나무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며 열심히 심고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배운다. 때문에 나무가 원료가 되는 '종이'는 환경파괴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써야 했고 우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진실로 믿고 왔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세계자연기금(WWF) 「Living Forests Report」에 의하면 산림파괴와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농업, 불법 벌목, 광업 그리고 대형 화재 순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AOSTAT 2015」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세계 벌목의 50%는 에너지, 28%는 건설용이며 종이 생산에 사용하는 나무는 불과 13%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오해가 숨어 있다. 종이는 우리가 흔히 보는 관광지의 울창한 숲, 우리 동네 앞산, 뒷산에서 무차별적으로 벌목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종이 제품의 원료가 되는 펄프, 나무칩은 인공조림에서 생산되는 나무로 만든다. 즉 제지산업을 위해 별도의 숲을 만들어 사람들이 키운 나무를 원료로 삼는다는 것이다. 숲에서 나고 자라 살아가는 동물들은 보호의 대상이며 인간이 허가 없이 이 동물을 사냥하면 처벌을 받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인간이 엄격한 관리 안에서 소와 돼지를 기르는 것은 허용된다. 나무도 마찬가지로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미국 비영리 기관인 그린 프레스 이니셔티브(Green Press Initiative)은 “아이패드도 평균 생애주기에 287lbs(13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반면 인쇄된 책은 단지 8.851lbs(4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게다가 종이책은 중고서점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읽히거나 종이 원료로 재활용되곤 하지만 전자책 기기의 부품은 보통 매립지에 버려진다”고 밝히며 종이책이 환경보호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전자책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의 멸종을 예측했었다. 그러나 종이책은 여전히 건재하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온전히 우리 몫이다.

이산화탄소 배출 130kg vs. 4kg

인공조림지는 순환이 기본이다. 종이 생산을 위해 키우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며 공기를 정화한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면 그곳에 다시 새로운 나무를 심어 재조림한다. 어린 묘목이 성장하는 동안 다 자란 나무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많은 산소를 생산한다는 것은 정설이다. 그렇다면 전자책은 어떨까? 우리는 은연중에 산림을 훼손하는 종이책보다 나무가 필요 없는 전자책이 좀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해왔다.



3D 프린팅 모델러

세상을 3D로 구현하고 싶다면

3D배경모델러는 아직은 생소하나, 해외에서는 게임이나 3D영화, 그래픽디자인, 웹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콘텐츠 CG나 게임산업의 모델링 작업은 현재에 이어 앞으로도 그 시장성이 무궁무진 할 것이다.

정리 편집실 참고 책 「MBTI 진로탐색」 외 다수



INTJ의 특징

#독립적인전략가 #논리적사고
#분석력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살리는 것에 능합니다. 혼자 조사하고 분석력을 활용하는 작업을 좋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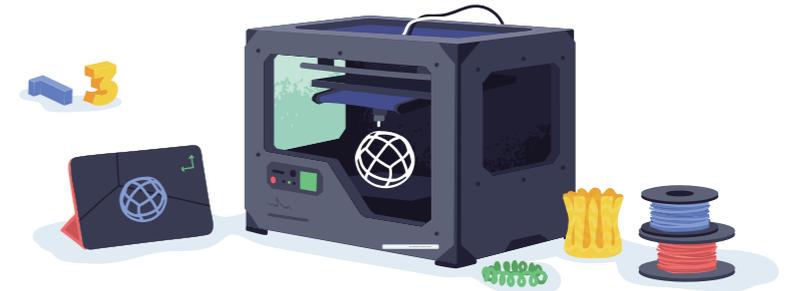
INTJ형은 건축가형으로도 불린다.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녔다.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강한 편이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흥미 있는 일에 빠지면 몰입하는 경우가 많다. 팀으로 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목표 달성이나 난처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편이다. 일에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소질도 지녔다. 지식 추구를 좋아하고 계획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p>I 나의 에너지 방향은?</p> <p>외향형 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보다는 말로 표현하길 원해요. •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p>내향형 I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기를 원해요. • 깊이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요.
<p>N 나의 인식 기능은?</p> <p>감각형 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의 경험, 현재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직접 관찰한 정보를 신뢰해요. 	<p>직관형 N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감, 아이디어, 의미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요. • 추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직감을 신뢰해요.
<p>T 나의 사고 성향은?</p> <p>사고형 T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하길 원해요. • 일관성, 공정성, 진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p>감정형 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관, 공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요. • 조화, 공감,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p>J 나의 의사 결정은?</p> <p>판단형 J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해서 결정을 내리고, 일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해요. • 명확성,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중시해요. 	<p>인식형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정보에 적응하고 선택권을 열어두는 것을 선호해요. • 유연성, 자발성, 개방성을 중시해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알까?

3D프린팅모델러의 성향

창의력	사소한 아이디어도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컴퓨터 활용	라이노 3D모델링 툴로 도면을 제작하고 싶다.
공간지각	평소 입체 형상을 상상하고 실제로 만들고 싶다.	호기심	다양한 3D프린팅 재료를 실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국어	해외 최신 자료를 조사하고 싶다.	자기개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는 일	3D프린터로 재료를 적층해 입체 물품을 만든다.		
관련 학과	재료공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디자인과		
관련 자격증	3D프린터운용기능사, 3D개발산업기사		



직업에 대한 이해

‘3D 프린팅’은 3차원의 모델링 데이터를 한층, 한층(Layer by Layer) 쌓아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물리적 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빠르게 제작된다는 기술적 특징이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현재 금형공정으로 제조가 불가능한 형상을 제작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사용재료도 플라스틱이나 금속, 바이오까지 제조 산업에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챗 GPT가 살펴본 직업 전망

3D 프린팅 기술은 상상하는 어떤 형상이든 모델링만 된다면, 현실화할 수 있는 제작 수단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누구나 소비와 제조가 가능한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와 1인 제조기업의 탄생이 가속화될 것이다. 1:1 맞춤형 상품제작의 가능, 환경 친화적 재료와 공정, 디지털 파일 교환에 의한 운송비와 물류비의 절감은 미래에 상당한 경쟁력 있는 기술로 평가될 것이다. 이처럼 3D 프린팅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실력을 쌓아 전문성을 키운다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과정평가지원자격 살펴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씨큐넷(cq-net.or.kr)

글·그림 여혜리 작가

일기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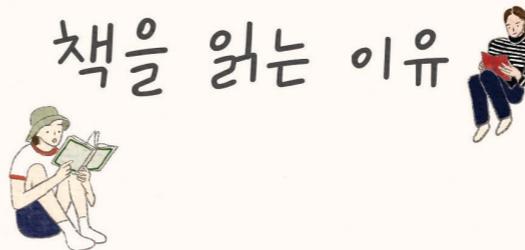


일기라 하면 고고명시절 방학이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몰아 썼던 그것



일기는 나와의 대화이자 나에 대한 관찰일지고

책을 읽는 이유



나는 평소에 느낌으로 상황이나 과거를 기억하는 편인데



책을 읽을수록 그동안의 두루뭉술했던 내 느낌이 까만 활자로 선명하게 기록되는 게 계속 시원하게 느껴졌다.



지금 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책에서 읽을 땐 말로 할 수 없이 큰 위로를 받기도 한다.



어쩌다 한 번씩 내가 가진 좋은 씨앗을 발견하기도 한다.



쓰다 보면 뜻밖의 해결 방법을 찾게 되기도 하는 일기. 오늘 했던 생각들을 가볍게 써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어떨까?



외롭거나 고민이 있거나 뭔가를 읽고 싶을 땐 책 읽기를 추천한다. 사락사락 종이 넘기는 소리와 함께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처음에는 이 세계가 저그마한 금붕어 연못과 툭툭 화단이 달린 아담하고 예쁜 유치원 돌인 줄 알았는데, 돌은 이내 공원이 되고 더 넓은 풍경이 되고 대륙이 되고 세계가 되고 낙원이 되고 코트디부아르 해안이 된다. 그리하여 늘 새로운 마법에 홀리고 늘 처음 보는 색색의 꽃이 만발한다. (헤르만 헤세의 책이라는 세계 중에서)

「월간내일」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월간내일」 2024년 5월호를 읽고 퀴즈에 응모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QUIZ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형에 따라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Tip) <고용 아카이브> 코너

Hint!

○○○○ 장려금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를 말하며,
이직한 날의 다음날은 의미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Tip)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정책> 코너

Hint!

○○○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4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2024년 5월 14일(화)까지	2795	9492	9853	0002
※ 당첨자에겐	5515	1693	4920	8086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0159	5196		



「월간내일」 독자 라운지

이번 「월간내일」 잘 읽어 보셨나요? 이번호를 읽으며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며,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욱 알찬 「월간내일」로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 1 이번 「월간내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 2 이번 「월간내일」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 3 앞으로 「월간내일」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참여기간 2024년 5월 20일(월)까지
※ 당첨자에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월간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